영국군의 철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967년과 1968년의 발표

1967년 7월 18일 영국 정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경제가 더 이상 극동 기지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런던은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싱가포르 측 기록에 따르면 1968년 1월 17일 영국은 1971년까지 군대가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1] 이 결정으로 수에즈 동쪽에서 영국의 군사적 역할은 막을 내렸습니다. 싱가포르로서는 주된 방위력과 최대 고용주 가운데 하나를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리콴유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빈세미우스는 철수를 기회로 보았고, 훗날 이를 "수면의 잔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2] 그의 평가는 1968년의 우려보다 실제 결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제가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충격의 규모

기지의 비중에 대한 당대와 후대의 추정치는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 서술에 따르면 군은 경제의 약 20%와 3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서술은 또한 영국군이 1966년 한 해에만 약 4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출했고, 기지가 싱가포르 국토의 11%인 약 15,000에이커를 차지했다고 덧붙입니다. 스톨링아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여러 수치를 기록합니다. 1976년 고켕스위의 회고적 추정으로는 14%, 1967년 한 EDB 관료에 따르면 약 20%, 빈세미우스 자신에 따르면 25%입니다.[3]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군인과 그 가족의 현지 소비 같은 간접 효과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다시 재무장관을 맡은 고켕스위는 이 충격을 목표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철수로 인해 연간 18,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영국군 지출이 1967년 4억 8,99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969년 4억 1,540만 싱가포르달러로 줄었지만, 교역과 산업의 확대가 그 감소를 "충분히 넘어설 만큼" 상쇄했다고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4]

전환: 셈바왕, 토지, 기지경제전환국

정부는 영국 시설의 인수를 관리하기 위해 기지경제전환국(Bases Economic Conversion Department)을 설치했습니다. 혼수이센이 이끈 이 기관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해고된 근로자들을 조선소와 제조업에 맞게 재훈련시켰습니다. 영국은 또한 5,000만 파운드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는데, 4분의 1은 무상 원조였고 4분의 3은 영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는 차관이었습니다.[5]

셈바왕(Sembawang)의 해군 조선소는 1968년 12월 17일 싱가포르에 이양되어 상업 조선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영국 조선업체 스완 헌터(Swan Hunter)가 5년 계약으로 이를 운영했고, 정부는 새 회사의 지분 과반을 보유했습니다. 창이(Changi) 공군 기지는 훗날 국제공항 부지가 되었고, 블라캉마티(Blakang Mati) 섬은 센토사(Sentosa) 휴양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1968년 9월 케펠 조선소(Keppel Shipyard)를, 1968년 12월 국적 해운사 넵튠 오리엔트 라인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eptune Orient Lines)를 설립했습니다.[6] 조선소와 항만이 어떻게 싱가포르가 벙커링(선박 연료 공급)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토대를 놓았는지는 제G편 제III장에서 살펴봅니다.

위기에서 촉매로

역사학자 로카셍(Loh Kah Seng)은 "철수(withdrawal)", "철군(pull-out)", "축소(run-down)" 같은 이 사건의 공식 어휘가 위축을 함축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개발, 전환, 동원을 촉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1968년에 약 16,500개, 1969년에 26,000개, 1970년에 20,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제조업 고용은 1965년 47,344명에서 1970년 120,509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1968년 7.3%에서 1971년 4.9%로 떨어졌습니다.[7]

철수는 규율을 요구하는 정치적 논리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노동, 토지, 투자에 관한 모든 조치를 외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이러한 프레임 덕분에, 평온한 시기였다면 격렬한 저항을 불렀을 법률을 통과시키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주

1. SG101, "British Military Withdrawal: From Crisis to Catalyst for Growt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7년 영국 백서가 철수를 발표함; 기지 비용은 추정 "£70 million a year";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33면: 1967년 7월 18일 발표; Wikipedia, "1968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8년 1월 17일 "Britain announced plans to withdraw its armed forces from Singapore by 1971". ↩

2.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36면, Loh Kah Seng, "The British Military Withdrawal from Singapore and the Anatomy of a Catalyst", Derek Heng and Syed Muhd Khairudin Aljunied (eds), *Singapore in Global History*, Amsterdam, 2011, 195–215면 중 199면, 및 빈세미우스 구술사 인터뷰(릴 11) 인용.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SG101, “British Military Withdrawal: From Crisis to Catalyst for Growth”, 앞의 문헌: 경제의 약 20%와 3만 개가 넘는 일자리; 1966년 4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 국토의 11%인 약 15,000에이커;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10면 및 335면, Rodan, *The Political Economy of Singapore’s Industrialization*, 87면, 1970년 예산 연설 및 Chua Soo Tian, “How MNCs helped Start-Up SMEs”, *Heart Work*, 앞의 문헌, 54–59면 중 55면 인용. ↩

4. Mothership, “Goh Keng Swee’s 1967 Budget prepared S’pore for British military withdrawal”, 2018년 2월: 연간 18,000개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고켕스위의 추산; 영국군 지출 1967년 4억 8,990만 싱가포르달러, 1969년 4억 1,540만 싱가포르달러; 고켕스위의 1970년 예산 성명 인용. ↩

5. SG101, “British Military Withdrawal: From Crisis to Catalyst for Growth”, 앞의 문헌: BECD는 기지 인수를 관리했고, 혼수이센이 이끌었으며, 해고된 근로자들을 조선소와 제조업에 맞게 재훈련시킴;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37–338면, 영국 외무·영연방부 문서 FCO 24/114, “Negotiations on Aid with Malaysia and Singapore”, 1968년 3월 8일 인용. ↩

6. Wikipedia, “1968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7 December: Sembawang Shipyard was handed back to Singapore”; SG101, “British Military Withdrawal”, 앞의 문헌: 해군 조선소가 상업 조선소로 전환됨;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38면: 정부 지분 75%, 5년 계약에 따른 스완 헌터의 경영으로 Sembawang Shipyard Pte Ltd 설립; SG101, “British Military Withdrawal”, 앞의 문헌; Wikipedia, “1968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케펠 조선소(1968년 9월 1일); 넵튠 오리엔트 라인스는 1968년 12월 30일 설립. ↩

7.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38면, Loh Kah Seng, “The British Military Withdrawal from Singapore and the Anatomy of a Catalyst”, 앞의 문헌 인용; SG101, “British Military Withdrawal”, 앞의 문헌, Loh Kah Seng (2011) 인용;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앞의 문헌, 368면, *Singapore Year Book* 1964–1968 및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인용; Kim Seah Teck Kim, “Singapore’s National Wages Council”, 앞의 문헌, 52면, *Singapore Annual Key Indicators 1968–1977*, Department of Statistics, 1978 인용.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